

#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통사고 급감”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절반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안전처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3년 공사를 끝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 96곳에 대한 공사 전·후 효과 분석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사업 시행 전인 2012년 100건이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시행 후인 2014년에는 52건으로 48% 감소했다.

사상자 수도 2012년 155명에서 2014년 85명으로 45.2%(70명)가 줄었다. 회전교차로란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원형의 교통섬을 뒤 여러 방향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시행 후 100건서 52건으로 48% 감소  
국민안전처, 4년내 1149곳 추가키로

돌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기로 하고 통행시절이다.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를 가로지르는 전통적인 교차로와 달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면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과속 또는 수직으로 다가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적다. 마주보는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좌회전이 완전히 없어져 이들 차량의 좌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사라진다. 운전자 입장에서 기존 교차로에서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오기까지 적은 시간이 걸리나, 회전교차로에서는 어떤 출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교차로를 계속 돌다 이동하면 된다.

이러한 효과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2014년에 기존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4.5%에 달했다. 사망자 수는 30.3%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2015년 6천

간 전국에 회전교차로 443곳을 설치한데 이어 2020년까지 1149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회전교차로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교통 흐름에 있어서도 순기능이 많다”면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위험 구간은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회전교차로 개선·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통안전관계자 워크숍을 갖는다.

/이노영기자



억지 독도의 날 폐기하라  
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억지 독도의 날 폐기 규탄대회'에서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디케시마의 날' 페지를 축

## 자동차 번호판 위조 운행 19명 검거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부착해 몰고 다닌 조직폭력배와 위조 번호판 공급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가짜 번호판을 제작해 돈을 받고 넘긴 김모(57)씨와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최모(42)씨 등 19명을 자동차면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자동차 등 세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알선책 이모(44)씨

등을 통해 사들인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위조 번호판 공급책 김씨는 가짜 번호판 1개당 6만원을 받고 19개의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알선책 이씨 등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들에게 80만원을 받고 가짜 번호판을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주에 근거지를 둔 조직폭력배가 위조번호판을 단 렌트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첩보를 입수, 번호판이 영치된 1000여대를 검색해 영치일이 지나서도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된 정황을 확인하고 위조업자 김씨와 알선업자 이씨, 위조된 번호판을 사들인 운전자들을 대거 붙잡았다.

이들은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차량번호판이 관한 구형과 경찰서에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번호판은 방법 CCTV와 무인 단속카메라 등에도 적발됐지만,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로 범법을 교묘히 피해 거리를 활보했다.

/이노영기자

## 檢, 내부 기강 문란 단속 강화

검찰이 성희롱이나 굶공수수와 같은 내부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서초동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고·지검 등 일선청의 검찰 활동을 담당하는 부장검사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검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내부 검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는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한 검찰 관련 쟁점에 대해 그룹별 토론과 사례 중심의 강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용주 기자

## 완산 서부파출소, 신속 출동 차량내 자살기도 30대 구조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발빠른 수색으로 자살을 기도한 30대의 생명을 구한 일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김동진, 김갑중 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3시 57분께 차량 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청취 후 112 위치추적 등을 통해 효자공원묘지로 긴급 출동했다.

효자공원묘지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은 차량 밖에 쓰러져 있는 최모(39)씨를 발견, 119구급차로 전북대학병원으로 후송하고 번개탄으로 인해 반소된 차량의 불을 꺼 차질 대령화재로 번질 사태를 운운으로 막아냈다.

이날 자살 기도한 최씨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지인에게 전화한 후 신변을 바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영기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주시, 22일부터 접수

전주시가 보험 가입 유도로 농업인들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과 농가의 소득안정,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수 및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22일부터 접수한다.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사과·배·감·포도·단감·곶감, 시설작물 파프리카, 장미 등 21종과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 2종 등이다. 이 가운데 사과 등 과수 5종은 다음달 25일까지,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 및 품목 농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등 농작물 43종과 농업시설물 2종이며 시는 오는 2017년까지 가입대상품목을 5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각각 보장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당 작목단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84세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농업안전재해보험 가입도 받고 있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모든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및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재해지원으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063-281-5070) 또는 각 지역품목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가짜 교사 등록’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전주지역 형사단속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양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47)와 허모씨(43·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47)와 허모씨(43·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1일 전주시 평화동의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뒤 허위로 A씨가 2012년 10월부터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력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4월까지 26회에 걸쳐 A씨를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건비 1400여만원을 보조받은 혐의를 기소했다.

이들은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특별활동 영어강사 B씨와 시간제 교사 C씨와 D씨를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총 8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지 만 부양수급 받은 보

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47)와 허모씨(43·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1일 전주시 평화동의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뒤 허위로 A씨가 2012년 10월부터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력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4월까지 26회에 걸쳐 A씨를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건비 1400여만원을 보조받은 혐의를 기소했다.

이들은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특별활동 영어강사 B씨와 시간제 교사 C씨와 D씨를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총 8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지 만 부양수급 받은 보

/이노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해독 프로그램 전문